

# “돈황의 찬란함, 불심으로 재현합니다”

서용 돈황전문작가,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초대전



서용 작 '찬산언어'

서용 작가는 돈황 벽화에 나타난 내용을 기초로 작품을 창작 응용하며 발전시켜왔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그간의 작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돈황벽화와 번상도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도상적 특성을 차용하고 도자기 법을 융합한 현대적 표현이 돋보이는 것들이다.

부산 갤러리 '예가'에서 개최  
벽화와 도자기 제작법 결합  
신심 돋보이는 13점 출품  
돈황학 박사 1기 식견 드러나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 초대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스위스 취리히, 시카고 등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2006년 중국에서 공헌한 12명의 외국인 중 문화계 대표로 수상했으며 중국 천진 TV, KBS, MBC 등 국내외 방송국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돈황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서용 작가는 돈황학 박사로서 국내 돈황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벽화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예술입니다. 돈황 벽화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시간은 저에게 천여 년 전의 화공들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이었으며 벽화는 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천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감수성을 담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서용 돈황 전문작가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부산 갤러리 예가에서 불교미술작품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호부터 30호 석굴의 다양한 크기의 작품 13점을 출품한다.

돈황 전문가로 꼽히는 서용 작가는 1997년부터 7년 간 실크로드 돈황에서 생활하며 돈황 벽화를 묘사하고 재해석해왔다. 2004년 서울에서 최초로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 학계와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작가의 깊은 불심으로 학문적 이론과 작가적 창의성을 더한 작품은 1500년 전 막고굴을 처음 만든 낙준 선사의 종교적 신심과 현대의 미감이 만나 탄생했다.

돈황의 막고굴 벽화는 4세기 중반부터 원나라 때인 14세기까지 1000년간 조성된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특히 돈황 석굴에 그려진 4500㎡에 달하는 벽화와 3000여 점의 불상으로 그 명성이 더해졌다.

서용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을 졸업 후 1992년 중국북경중앙미술학원에서 유학하며 수인판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벽화과를 석사 졸업했다. 막고굴 벽화를 연구하며 외국인 최초 중국남주대학교 돈황학 박사과정 1기를 졸업했다.

가나 화랑에서 열었던 귀국전을 시작으로 양산



12월 19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JK 챔버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권혁주의 협주가 진행된다. 사진은 JK 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모습.

## 선율로 함께하는 기도와 명상의 시간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12월 19일 바흐 협주곡 연주

“음악은 세계의 공통어이며 번역이 필요치 않다. 거기에서는 영혼이 영혼에게 말하기 때문이다.”(요한 세바스찬 바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9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IBK홀서 명상을 주제로 바흐와 만나는 이색 음악회가 열린다. 지휘자 김의명이 이끄는 JK 챔버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솔리스트인 권혁주(악장 및 바이올린), 바이올린 함지민, 바이올린 양경아, 소프라노 최세정과 함께 겨울문턱서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과 힐링의 음악을 연주한다.

라틴어로 메디타티오(meditatio)라는 명상, 묵상(meditation)을 통해 더욱 가슴을 울리는 영혼의 음악 바흐와 JK 챔버 오케스트라가 만난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끄는 젊은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JK 챔버 오케스트라는 이미 다양한 활동과 연주회를 통해 윤기 있는 음색과 치밀한 앙상블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바흐를 조명해 명상에 어울리는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

바흐 음악은 심리 안정에 치료효과가 있고 투명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 한편 회화적이어서 많은 영화음악이나 재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그런가하면 애절하고 간절함도 느껴진다. 이런 다양한 매력에 클래식 감상의 고수들 중에 바흐 매니아층이 두터운 이유다. 여러 레퍼

토리 중 권혁주 연주로 들어볼 바이올린 협주곡 BWV 1042는 아름다운 선율로 특히 유명하다. 2악장 저음부를 그리는 현악앙상블과 독주 바이올린의 연주는 먼 산 넘어 해가 뜰 때 안개가 자욱한 듯한 아련함을 그려낸다. 바흐의 명상적인 면을 권혁주는 하이페즈나 힐러리 한에 대비해 어떤 연주를 만들어 낼지 기대된다. 또한 더블바이올린 연주도 놓칠 수 없는 레퍼토리다. 광고나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많이 쓰일만큼 유명한 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함지민과 양경아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들어볼 좋은 기회이다. 앙상블의 전달력이 돋보이는 IBK홀서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스트링앙상블로 들어보는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때에 나와 남,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경건히 음악을 감상하며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02)2157-0778

김주ыл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김영옥 작 '날아오른 평화의 새'

## 세상 아픔 치유하는 평화의 노래

김영옥 개인전 '날아오른 평화의 새'... 23~29일 '갤러리1819' 서

김영옥 작가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되고 자신을 완성시키는 그림이 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만다라이다. 김 작가는 만다라는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이끌어 완전하게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작가의 작품을 보면 무의식의 상상을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해, 화선지에 수백 번 반복적으로 찍어내 기본 뼈대를 갖추고 무수히 많은 붓 터치로 내·외적 통합을 이룰 때까지 화폭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작품에 쓰인 동양적인 서예재료들, 석채, 분채, 금분, 은분, 아교 등으로 깊이를 더한 만다라의 색들은 이제까지 볼 수 없는 신비로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김영옥 작가는 고난도의 내적수련의 시간을 거쳐 최근 만다라심리입문을 비롯해 수십 권의 만다라치유워크북, 마그마힐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보급해왔다. 그동안 숙제로 끌어안고 있었던 것을 8회 작업을 통해서 내적 창작들을 1차로 출산한 것으로 김영옥은 최근 많이 홀가분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김영옥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끝으로 더 이상 자신을 투신하는 힘든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작가는 “내 마음의 평화를 원했고, 세상의 평화를 원했고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했다. 8회째 맞이하는 작품에서 이 원대한 뜻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불교 모토로 한 작품성 돋보여

성홍영 시인, 제18회 실상문학상 대상 수상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이 문학인들을 위해 제정한 실상문학상의 18번째 시상식이 열린다.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조원호)는 12월 18일 오후 6시 부산일보 대강당 10층에서 제18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갖는다.

실상문학상 본상은 성홍영 시인, 작가상은 정훈교, 박서현, 최순해 시인과 안경덕, 유희자 수필가, 작품상은 이영애 시인과 최병섭 수필가, 신인상은 이대숙, 남명순 수필가와 김류은 시인이 받는다.

조원호 부산불교문인협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오늘에 이르까지 물심양면으로 베풀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우리 모두 추제의 한마당인 실상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 달라”고 초청했다. 김창식 실상문학상 심사위원장은 본상 수상자인 성홍영 시인에 대해 “불교를 모토로 하여 시를 엮어낸 시인의 작품성은 매우 이례적이고 뛰어났다”고 평했다.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 이사장 혜종 스님은 “현대에 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학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학작품이야말로 하나의 훌륭한 포교사”라며 “문학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p>• 공단등(6cm) @2,500원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황금등(8cm) @3,300원</p>	<p>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가 900원 포장: 봉투 삽입</p> <p>삼배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p> <p>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p> <p>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p>
<p>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90,000원</p>	<p>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10×43cm) 10,000원 2도(7×30cm) 포장: 100매 비닐포장</p> <p>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7.5×30cm</p> <p>입춘대길(大/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p> <p>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크기: 60×7cm (빨강/노랑) 포장: 개별 봉투포장</p>
<p><b>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cm (50구) @65,000</li> <li>23cm (50구) @65,000</li> <li>25cm (50구) @65,000</li> <li>30cm (50구) @65,000</li> <li>35cm (50구) @70,000</li> <li>40cm (50구) @73,000</li> <li>50cm (50구) @75,000</li> <li>1 m (50구) @90,000</li> <li>2 m (25구) @80,000</li> </ul>	<p>경면삼배삼재부 판매가 6,0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10×15cm / 9×14cm</p> <p>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크기: 9×20cm 포장: 100매 비닐포장</p> <p>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크기: 9×20cm 포장: 100매 비닐포장</p> <p>한지 세뱃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흰색 / C: 노랑-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흰색 / D: 분홍- 참 좋은 인연입니다.</p>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물고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10-2094-2991-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